

조선업 퇴직근로자에게 새 희망을

군산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 퇴직근로자 중 338명 관리... 취업알선·상담 통해 22명 재취업

군산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가 내달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앞두고 대량실직으로 실의에 빠진 조선업 근로자들에게 새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선업 퇴직근로자 중 33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약 1600여회의 취업정보제공, 전·이직 상담,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실직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안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군산고용복지+센터 내 개소한 군산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중 '군산 조선업 고용 안정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군산시가 주관, 전북새만금산업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고 있다.

군산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5월, 조선업체 실직자 중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실직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동료직원들에게 다양한 센터 홍보 및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소 이후 전직식을 1회, 재취업역량강화특강 3회를 개최하여 모두 60여명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취업알선 및 상담을 통해 22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실직 이후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거나, 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온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어 직접 조선업 실직자를 센터 상담사로 채용하여 센터 이용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는 실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군산공단 내 조선업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는 조선업 퇴직근로자 중 33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제공, 전·이직 상담, 방문·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 전략산업인 자동차, 풍력산업 등 추진 중에 있다. /군산=장현 기자

학연계 지역사회 장의학교 성과모고회

2017. 6. 26(일), 도청 대회의실



'신선유기 팀' 대학연계 창의학교 '대상'

군산대 경제학과 소속... '선유도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안'

군산대학교 경제학과가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전북 지역 대학연계 창의학교 최종성과 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 도와 지역 대학 간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출범한 대학연계 창의학교는 군산대를 포함해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했다. 참여 대학의 다양한 학과들이 한 학기 동안 전공교과목을 개설 및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습을 진행하는 등 다양

한 창의학교 활동이 이뤄졌다. 보고회 결과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신선유기 팀'의 '고군산군도 선유도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김진수 외 4인)'이 영예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대상 수상에는 해외 배낭여행의 특점이 주어졌다. 이외에도 군산대학교의 '군산 폐철도의 활성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참여 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무료 토양·액비 분석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무료 토양검정 및 액비분석 서비스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5~10개 지점에서 15~20cm 깊이로 약 1kg 정도의 양을 혼합하여 필지지만, 면적, 재배 작물명 등을 기록해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분석기간은 약 1주 정도 걸린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859-498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현 기자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익산시가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4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오염 배출업소 밀집 지역,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를 이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익산=장현 기자

두영기전, 익산 제3산단 신설 투자 협약

30억 투자 자동세차기 부품 제작... 50여명 고용 계획

익산시가 '산업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시정 최우선 방침으로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시청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 두영기전(주) 이명준 대표,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두영기전(주)는 익산 제3산단 6.181㎡ 부지에 30여억원을 투자하고 5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두영기전(주)는 2014년 3월 삼가농공 단지에 설립한 업체로 관계사인 자동차세전 제조업체인 두영산업(주)와 함께 대년간 숙련되고 축적된 인적·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부지협소로 신규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익산제3일반산단에 신설공장을 투자하게 되었다. 그간 자동세차기 부품 물량 일부만 제조했으나, 하반기부터 자동세차기에 들어가는 프레임, 건조송풍기 등을 일괄 제작하여 물량공급

을 늘릴 계획이다.

업체에 따르면 전국주요소 약 1만2천개소에 약 6,500여대의 자동세차기가 설치·가동 중인 가운데 연간 전체 설치대수의 15%정도인 1,000여대의 교체 수요가 예상된다. 두영기전(주)은 이중 400여대분의 주요부품을 납품할 계획이며, 아파트 지하회수기 설비 등 신사업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재투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시에서도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현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동산동 복지허브화 현장행정 펼쳐

정현을 익산시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1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체험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시는 정부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춰 지난 2016년 6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선두로 9개 읍면동 지역에 맞춤형 복지계획을 신설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했다.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 발굴 연계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플레랑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생일 찾아주기 사업에 참여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생일의 주인공인 임모(90) 할머니에게 생일 축하노래를 불렀다. 또한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고, 덕담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센터장 등 14명의 민·관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세대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회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위기가정인 윤 모(65)씨의 주거환경 개선과 대상자와 아들의 정신건강관리 지지체계 마련, 민간자원 연계 가능 여부 등이 논의됐다.

익산시는 올해 익산시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산=장현 기자

대상, 청정원 행복꾸러미 나눔행사 가져

600세트 군산시에 전달 예정

대상(주)은 '청정원의 나눔수록 맛있는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28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번 나눔 행사는 대상 임직원과 주부봉사단 그리고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의 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장, 식용유 등 식품을 직접 포장했다. 이날 포장된 행복꾸러미 600세트(3,000만원 상당)는 관내 차상위 이웃 60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상(주)은 2006년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2분기 우수봉사자 시상식 개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2/4분기 나도 봉사왕이다 시상식'을 군산시보훈회관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은 매년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실적을 기준으로 연4회 분이별(노인, 환경, 문화/공연, 아동/청소년, 학생) 봉사횟수, 봉사시간 최다 봉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2분기 영예의 수상자들은 ▲노인분야 안영자 ▲아동/청소년분야 한종현, 고유상, 고상덕 ▲장애인분야-



김옥수 ▲문화/공연분야 김경민, 조현아, 이연수 ▲학생분야 김동후, 양강혁 씨이다. /군산=김광준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